

# 한국투자신탁운용, '일본4차산업혁명펀드' 주목



4차 산업혁명 바람이 사회 전반에 거세게 일면서 관련 펀드도 꾸준히 선을 보이고 있다.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유망한 해외펀드로 한국투자일본4차산업혁명펀드를 꼽았다. 이 펀드는 일본의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70~100개 종목에 투자한다.

자동차, 의약, 농업, 금융산업 등 기존 산업에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, 클라우드컴퓨팅,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, 헬스케어, 스마트농업, 핀테크 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.

엔화 환 헤지 비율은 70%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.

펀드를 위탁 운용하는 AMone사는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 내 자산운용사로 지난 2016년 미즈호 자산운용과 다이엠 자산운용 등 총 4개 자산운용사가 통합해 출범한 종합 자산운용사다.

AMone사의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운용자산은 약 497억달러로 아시아 최대 규모다.

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"4차 산업혁명은 먼 미래의 변화가 아닌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패러다임"이라며 "향후 20~30년 이상 장기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는 4차산업 시장은 효과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 ▼